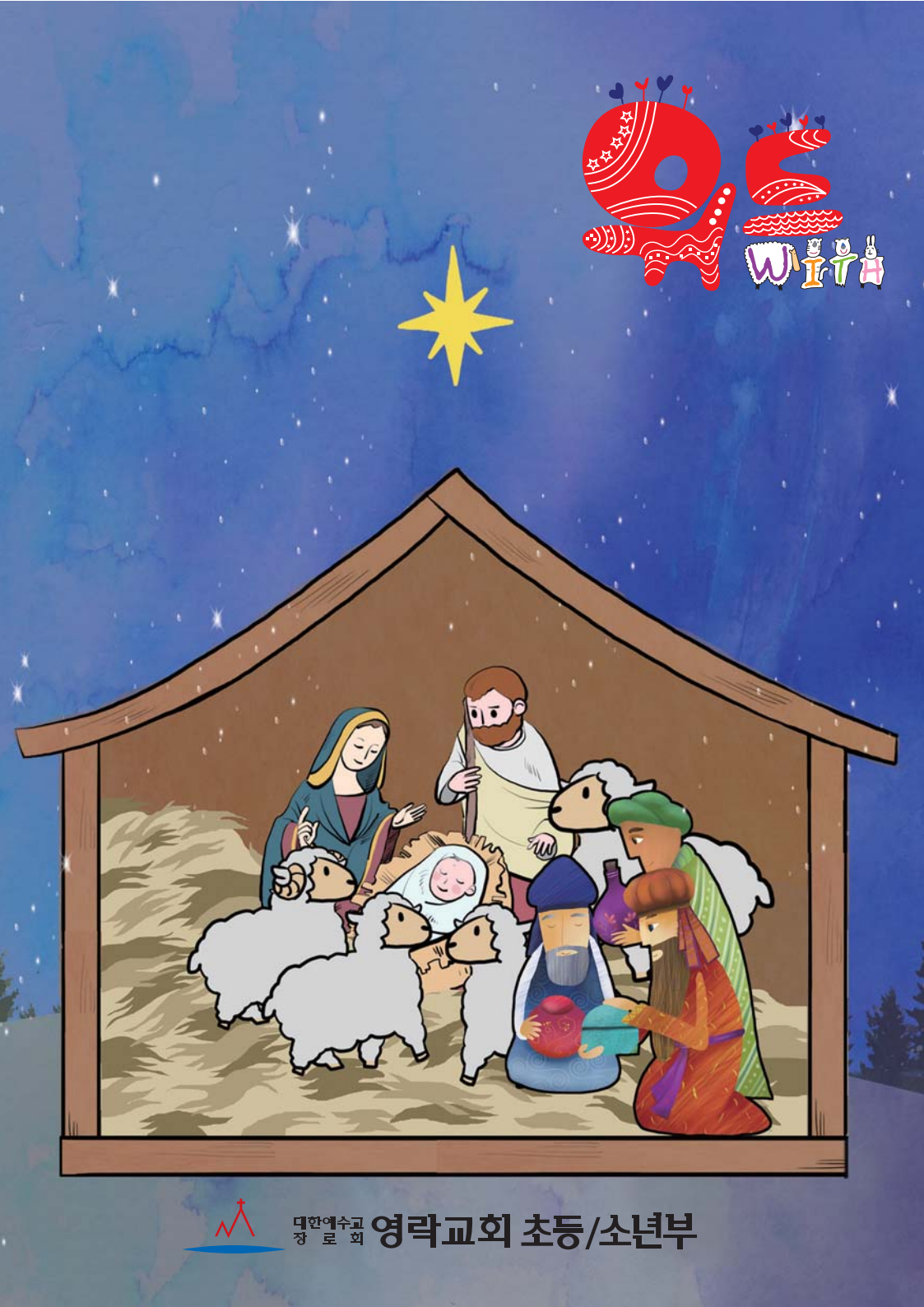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 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어린이 QT God's Time ·····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어린이 QT God's Time ····· 20

English Bible Study ····· 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35
어린이 QT God's Time ·····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7
어린이 QT God's Time ····· 48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 56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 57

펀펀 플레이
숨은그림찾기 ····· 58
색칠하기 ····· 59

위드포토 ····· 60
위드큐티스티커 ····· 63
교육활동 ····· 64

암송 구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이사야 43장 19절 -

♥첫째주♥ "성탄, 그 희망의 메시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둘째주♥ "성탄, 그 기다림의 메시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30절) *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셋째주♥ "성탄, 그 믿음의 찬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6절) *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해요.
♥넷째주♥ "새롭고도 놀라운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실천 내용

1.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쁨의 찬양을 한 곡씩 듣거나 불러보아요.
2.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목표를 세워보아요.

위드 WITH

12월 첫째주
2020년 12월 6일~12일

Memory time

성탄, 그 희망의 메시지

첫째주

♥ **주제** : 성탄

♥ **암송구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오늘의 주제** : 성탄, 그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 9:1-7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❶ **여호와께서 어느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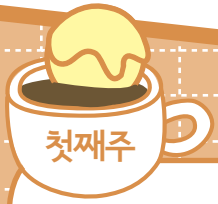
❷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본다고 하였나요? (2절)**

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치나요? (2절)**

❹ **우리에게 난 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6절)**

❺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오셔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어떻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이사야는 유다가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걷힐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1절) 그리고 절망뿐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이 올 것이라 말해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음을 이사야는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는 바로 흑암 속의 빛이며, 평강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던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어둡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밝게 비추어 주실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희망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희망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룻기 1:1-22 "축복의 이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12.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13.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 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14. 그들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겨레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6.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18.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아도니베섹 : "나의 주, 베섹", "베섹의 주"

with 관찰

1.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14절)

"...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 맞추면서 ☐☐ ☐☐ 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 ☐☐ ☐☐ 다"

2. 오르바를 따라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이 대답한 말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16절)

"...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 가 내 ☐☐ 이고, 어머님의 ☐☐ ☐ 이 내 ☐☐☐ 입니다."

with 생각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지요. 그들에게 나오미는 겨레과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나오미의 설득 끝에 오르바는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았어요. 룻이 나오미의 곁에 남은 이유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의무감이나 동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족속, 즉 이방 사람이지만, 룻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with 결심

룻은 이방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겨레과 겨레의 신을 버리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어요.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룻이 평생 자신이 믿었던 겨레와 겨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룻기 2:1-23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방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8.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새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9.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11.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12.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오."
13.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새댁 : '새색시'를 높여 이르는 말

with 관찰

1.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8절)

2.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누가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나요?.(12절)

with 생각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그런 룻을 본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겨레를 버리고 이곳까지 온 룻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 같은 이방여인을 보살펴 주냐는 룻의 질문에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겨레와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룻을 보시고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바로 보아스를 통해 룻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근심과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룻기 3:1-23 "신앙인의 모습"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12.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13.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 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정숙 : 여자로서 행실이 곧고 마음씨가 맑고 고움

집안간 : (성경에서) 친족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

with 관찰

1.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했나요? (11절)

□□한 여인

2.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바로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

더 가까운 □□이 있어서

with 생각

보아스는 집안간으로서 자신을 아내로 맞아 달라는 룻의 요청을 수락하였어요. 하지만 조건을 붙였지요. 엘리멜렉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만일 그가 룻을 맡지 않겠다면 그 때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볼까 봐 룻을 거절하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렇듯 보아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with 결심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한 것이지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따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룻기 4:1-22 "룻이 받은 축복"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3.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14.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15.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그막에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16.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17.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18.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을 누가 보살펴 주셨나요? (13절)

□님

2.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6절)

□□

with 생각

자신의 겨레와 믿던 이방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였어요. 결혼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셨지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즉, 룻이 낳은 오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방 여인 룻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먹을 것 걱정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항상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이사야 43장 19절 -

위드 WITH

12월 둘째주
2020년 12월 13일~19일

Memory time

성탄, 그 기다림의 메시지

둘째주

♥ **주제** : 성탄

♥ **암송구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30절

♥ **오늘의 주제** : 성탄, 그 기다림의 메시지 ▷누가복음 2:25-33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25절)**

② **시므온은 어떠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요? (26절)**

③ **시므온은 무엇을 보았다고 고백했나요? (30절)**

④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32절)**

⑤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있나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둘째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일평생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지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과 구원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30절) 라고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해요. 장난감, 게임, 맛있는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한가요?

Pray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1-28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1.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16.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18.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삭도 : 머리털을 깎는 칼

with 관찰

1.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10절)

ㅈ ㄴ

2. 기도하는 한나를 본 엘리는 어떻게 말하였나요? (17절)

"... 이스라엘의 ㅎㄴㄴ이, 그대가 ㄱㄱ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with 생각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던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 늘 마음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본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는 한나에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한나는 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with 결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한나는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의 힘들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의 위로를 받은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것을 해결해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동부 친구들도 한나와 같이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1-36 "하나님께 감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2.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 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4.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5.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6.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7.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9.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10.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한나의 기도에서 표현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7-9절)
   ① 부유하게도 하시고
   ②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③ 참지 않으시고
   ④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2. 한나는 교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3절)

"... ☐☐ 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 ☐을 아시는 ☐☐☐이시며, ... "

with 생각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힘이 없고 나약한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요.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렸어요. 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3:1-21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4.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7. 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8.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10.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요? (4-10절)

☐번

2.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챈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였나요? (9절)

"... 주님, ☐☐하십시오. 주님의 ☐이 듣고 있습니다 ..."

with 생각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며 엘리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착각했어요. 이 상황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요?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4:1-22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3.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5.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6.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8.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9.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10.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 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삼만 명이 죽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블레셋에게 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3절)

□□의□□□

2.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10절)

"... 이스라엘이 □□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 져서, ..."

with 생각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로에 있던 주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싸웠지만 결국 크게 지고 말았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형상과 같이 생각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거란 착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많아요. 하지만 물건은 물건일 뿐,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ENGLISH BIBLE STUDY

누가복음 1장 30-38절 (새번역성경) / Luke 1:30-38 (NIRV)

Christmas — Celebrating Jesus, God's greatest gift

크리스마스 -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31.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38.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Genesis 1:26-30 (NIRV)

30.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God is very pleased with you.
31. You will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a son. You must call him Jesus.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The Lord God will make him a king like his father David of long ago.

33.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will rule forever over his people. They are from the family line of Jacob. That kingdom will never end."
34. "How can this happen?" Mary asked the angel. "I am a virgin."
35.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to you. The power of the Most High God will cover you. So the holy one that is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36. Your relative Elizabeth will have a child even though she is old. People thought she could not have children. But she has been pregnant for six months now.
37. That's because what God says will always come true."
38. "I serve the Lord," Mary answered. "May it happen to me just as you said it would." Then the angel left her.

Vocabulary

Be pleased with~ : ~을 즐거워하다
Serve : 섬기다
As you say :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30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God l_ very p_ _ _ _ _ _ w_ _ _ you

38 "I s_ _ _ _ the Lord," Mary answered.
"May it happen to me just a_ y_ _ s_ _ _ it would." Then the angel left her.

Interpretation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읽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마리아도 이 말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Application

When an angel came to preach this amazing news to Mary, it was hard for her to believe it. Back then, it was illegal to have a baby before marrying. She could die for obeying to what the angel was saying. But she instantly listened to God's words and did not disobey. She said that she is God's servant. This is the attitude that God loves. Because of her humbleness, she received the honor of becoming the human mother of Jesus. God sent us His son, for us to be saved and loved. We all should remember His grace, and Mary's attitude. We are all servants of God just like Mary is. When we celebrate Christmas, we must remember the point of it.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마리아는 믿기 힘들어했어요.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즉각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그녀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마리아의 겸손함을 닮아가야 하지요. 우리는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종이에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확히 기억하기를 바라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Luke 1:38, NIRV
누가복음 1장 38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 I serve the Lord," Mary answered. "May it happen to me just as you said it would." Then the angel left her."

- Luke 1:38, NIRV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이사야 43장 19절 -

위드 WITH

12월 셋째주
2020년 12월 20일~26일

Memory time

성탄, 그 믿음의 찬양

셋째주

♥ **주제 :** 성탄

♥ **암송구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6절

♥ **오늘의 주제** 성탄, 그 믿음의 찬양 ▷누가복음 1:46-55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해요.

❶ **본문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4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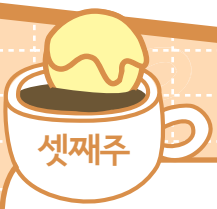
❷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7-48절)**

❸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나요? (50절)**

❹ **하나님이 주리는 자(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대하셨다고 찬양하나요? (53절)**

❺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의 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편인가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친구(가족)들과 나눠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귀한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곧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낮아짐, 순종, 찬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요?

Pray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5:1-6:18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 갔다.
2.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3.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4.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생략)
7.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9.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10.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 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11.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12.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옮겨간 곳을 모두 적어보세요. (1절, 8절, 10절)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서 어느 곳에 두었나요? (2절)

with 생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지요. 패배한 나라의 신을 빼앗아서 더 강한 나라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은 다곤 신이 있는 신전에 갔다가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곤은 블레셋의 신으로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넘어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가보니,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다곤은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 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스돗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한다며 그 궤를 가드로 옮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들이 강하게 반대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어요.

with 결심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온 후,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모든 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곤 신은 하나님의 궤 앞에 두 번이나 쓰러져 있었고, 심지어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신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신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방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리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다시 세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6:19-7:17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4.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5. 그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6.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8.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11.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아스다롯 :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랑, 농경, 전쟁의 여신

with 관찰

1.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던 장소는 어디 인가요? (6절)

2. 다음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다. (3절)
   ②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하루종일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 (6절)
   ③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7절)
   ④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을 당황하게 하셨다. (10절)

with 생각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따르며 모든 신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겼어요. 그 후, 사무엘은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루 종일 금식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둥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리치셨고, 천둥소리에 놀라 그들을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이방 신들과 다신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여 산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지요. 결정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셨어요.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8:1-22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6.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7.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9.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생략)

19.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22.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나요? (5절)

2.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나요? (7절)

"그들이 ☐를 버린 것이 아니라, ☐를 버려서
자기들의 ☐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with 생각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따졌어요.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에 말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나라가 부강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이집트에서도 구원해주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해주셨고, 이방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너(사무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하나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9:1-27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18.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 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7절)

2. 사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21절)

지파

with 생각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자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했어요. 한참을 찾다가 숩 땅에 이르렀을 때, 종이 말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맞는다고 하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사울은 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 맘 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 만나게 할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사울에게 당신의 손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아는 왕이 된 사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젊은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4절)하며 성실했고, 교만하지도 않았고(2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26절)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된 후의 사울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요. 성실함은 자신을 위한 독선이 되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성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이사야 43장 19절 -

위드 WITH

12월 넷째주
2020년 12월 27일~2021년 1월 2일

Memory time

새롭고도 놀라운 일

넷째주

♥ **주제 :** 성탄

♥ **암송구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 **오늘의 주제** 새롭고도 놀라운 일 ▷이사야 43:15-21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

②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9절)**

③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21절)**

★ **교육 활동 -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준비물 - 색종이, 가위, 펜 (십자가 종이접기 참고 : https://youtu.be/hzGwi62r58o)

① 색종이 접기로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② 한 쪽 기둥에는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적고, 한 쪽 기둥에는 '2021년 나의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③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활동을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18절) 여기에서 '이전 일'은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에 겪은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19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은 메마른 사막에 강이 생기고, 막막한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보고 하나님께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대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감사한 일들을 나누어보세요.

Pray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0:1-27 "이스라엘의 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다.
19.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 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20.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21.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22.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23.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24.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 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26.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27.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학대 :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힘

환난 : 근심과 재난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의 왕을 세우셨나요? (20절)

"... 주님께서 [ ][ ][ ] 지파를 뽑으셨다."

2. 사울은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22절)

① 집 ② 짐짝 사이 ③ 교회 ④ 학교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힘이 센 사람들 모두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1:1-15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6.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7. 사울은 겨릿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나섰다.
8. 사울이 그들을 베섹에 모으고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에서 삼십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삼만 명이 왔다.
9.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쬘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10.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 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11.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사울이 잡은 동물은 무엇인가요? (7절)
   ① 염소 ② 양 ③ 소 ④ 돼지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11절)
   ①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분노했다.
   ② 사울은 베섹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③ 이스라엘에서 삼만 명, 유다에서 삼십만 명이 모였다.
   ④ 사울의 군대는 암몬 군대를 이겼다.

with 생각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은 함께 싸우러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스라엘에서 삼십만 명, 유다에서 삼만 명, 총 삼십 삼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은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적진에 들어갔고,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with 결심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고, 사울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_____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2:1-25 "마음을 다 바쳐 주님만을 섬겨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21.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22.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3.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24.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25.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20절)

"... 마음을 다 바쳐 [ ][ ]을 섬기십시오!"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25절)

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②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③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④ 악한 행동을 계속해도 망하지 않는다.

with 생각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무엘은 그들이 잘되도록 기도했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길을 가도록 가르쳤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고 순종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마음을 다 바쳐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마음을 다 바쳐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3:1-23 "해서는 안될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8.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10.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11.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2.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이레 : 7일

번제 : 짐스을 통째로 태워 제물로 바친 제사

영도자 :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with 관찰

1. 사울은 사무엘을 며칠 동안 기다렸나요? (8절)
① 2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2. 사울은 어떤 제물로 번제를 드렸나요? (9절)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과 □□□□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with 생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어요.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짖었지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다면, 계속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넷째주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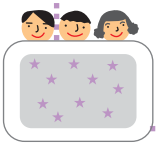
말씀 〈누가복음 2:8-14, 새번역〉

8.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 하였다.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13.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14.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OO(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는 큰 평화가 찾아왔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란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가득할거야.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OO(이)의 마음에 모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OO(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주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시간을 뚫고, welove〉

당신을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 없는 우리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찬양 가사를 보니 어땠니?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OO(이)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며 힘없는 우리를 위로해주신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OO(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OO(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방금 읽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이웃을 돕고 위로해줄 수 있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OO(이) 곁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FUN PLAY

숨은그림찾기

아래 그림 속 숨겨져 있는 5개의 물건을 찾아보세요!
(숨긴 그림 : 도토리, 야구공, 실내화, 사과, 안경)

정답은 62p에서 찾아 보세요!

색칠하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색칠해 보아요!
색칠 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찾아 적어보아요!

워드 PHOTO

초등2부

3-1 이한휘

초등2부

3-1 한지안

초등2부

3-1 최민하

초등2부

3-2 류은성

초등2부

3-3 이시우

초등2부

3-13 임상윤

열공 PHOTO

초등2부

3-16 김주하

초등2부

3-17 원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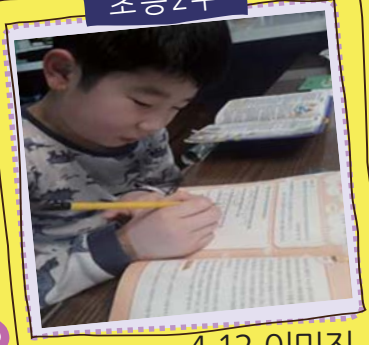
초등2부

3-17 이주하

초등2부

4-11 장예비

초등2부



4-12 이민진

초등2부

4-14 전시은

12월 QT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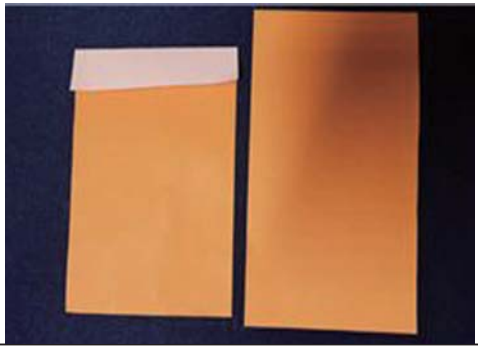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12월 넷째 주(12/27)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준비물 - 색종이, 가위, 펜
(십자가 종이접기 참고 : https://youtu.be/hzGwi62r58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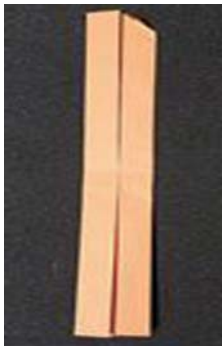
1) 색종이 접 기로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2) 한 쪽 기둥에는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을 적고,
   한 쪽 기둥에는 '2021년 나의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3)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활동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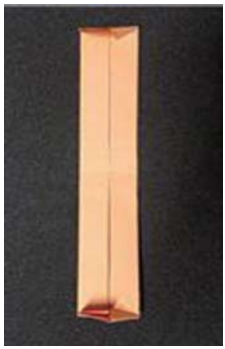
1.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2.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잘라주세요.
3. 반으로 자른 색종이 한 개의 윗 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4. 작은 종이에는 "2020년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 큰 종이에는 "20201년 기도제목"을 적어주세요.
	

5. 작은 종이를 세 번에 걸쳐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6. 세로로 접어주세요.

7. 끝부분을 모서리에 맞춰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 선에 맞춰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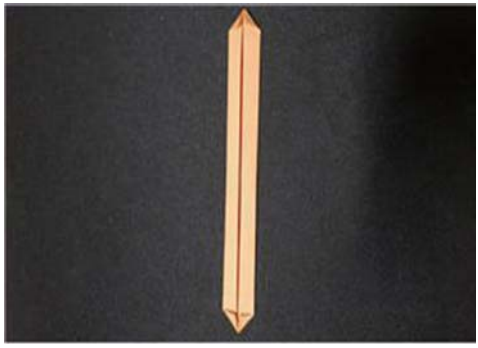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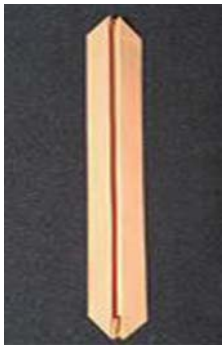


8. 양쪽 모두 반을 접어 주세요.

9. (4)에서 반으로 자른 다른 한 종이를 (5)와 같이 접어주세요.

10. 양쪽모두 모서리에 맞춰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11.삼각형으로 접은 선을 안쪽으로 눌러주세요		12. 짧은 막대의 종이를 긴 막대에 넣어 서로 연결해줍니다.	
			
13. 긴 막대를 접어서 짧은 막대 사이로 연결해줍니다.			14.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완성